

5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Chapter

삼상 18:1~5, 19:1~7

찬송가 86장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찬양 143장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오늘 배울



말씀

1.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남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함을 압니다.
2.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영원한 친구이심을 압니다.

마음 열기



한번 쬐은 보았을 뒤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화가라는 같은 꿈을 키웠던 친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꿈을 이루도록 낮에는 어려운 일을 하고 밤에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뒤러가 직접 그렸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아름다운 우정을 가꾸고 친구를 위해 희생할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말씀을 이해하기

공과말씀정리

좋은 친구는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나쁜 친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선택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친구와 좋은 우정을 잘 가꾸어나 가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깊은 우정을 쌓고 가꾸어 나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예입니다. 그들은 나이와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 서로 함께 지낼 수도 없었지만 소중한 우정을 끝까지 잘 가꾸어 나갔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둘 모두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락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연락되다’는 말의 뜻은 ‘하나로 묶다, 연결되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사랑으로 다윗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라도 표준 시간에 맞추면 서로의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둘 모두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기에 둘의 마음이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기뻐하여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으며 자기의 겔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버지 앞에서 다윗의 선한 성품과 헌신, 업적과 믿음을 칭찬하며 그를 보호해 주었을 뿐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다윗도 그런 요나단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요나단의 후손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겔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삼상 18:3~4)

Then Jonathan and David made a covenant, because he loved him as his own soul. And Jonathan took off the robe that was on him and gave it to David, with his armor, even to his sword and his bow and his belt. (1S 18:3~4)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삼상 20:18~23)

(삼상 23:15~18)

(삼하 9:1~8)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 주십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주님과 우리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세 가지만 적어 보세요.
2.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13절을 읽고 잘 생각한 후 써 보세요.
3.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면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14절).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과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9~12절을 읽고 답을 정리해 봅시다.
 - ① 주님의 () 안에 거함으로 (9절)
 - ② 주님의 ()들을 지킴으로 (10절)
 - ③ 형제자매끼리 서로 () 함으로 (12절)
4. 우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님과의 사랑을 계속해서 키워 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11절을 읽고 정리해서 답을 써 봅시다.
5.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지 16절을 읽고 정리해 보세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우리의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영원한 우정을 쌓아나가기 위해 내가 먼저 노력할 것을 결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초점

작은 화각을 가진 단렌즈를 통해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면
주위의 모든 배경들은 뿌옇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대상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나의 개인적인 신앙과 목표,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주변의 많은 것들이 또렷이 보여
나의 시야를 분산시킬 때가 많습니다.
주님도 보고
주변도 보고

다시 초점을 주님께만 잡아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날아갈테니까요.





조금 넓은 화각의 기본렌즈로 바뀌서
여러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제와 봉사, 교회 안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게만 맞춰져 있는 초점으로 주위를 보려니
어느새 답답해집니다.
주변이 흐리게만 보이거든요.

형제자매가 무엇을 하는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점점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보기 원하는 만큼 초점을 넓게 잡아 봅니다.

뿌옇던 형제자매가 다시 선명하게
보일테니까요.





그리고 더욱 넓은 부분을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광각렌즈를 통해 내 시야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넓혀 봅니다.

교회를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가는 곳에 대한 관심,
그곳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함께해야 하는지



그렇게 넓게 보다가
또다시 한 부분만을 집중하고
다시 조금 시야를 넓혀서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라는 렌즈를 그때그때
바꿔 가시며 한 작품씩 짚어가십니다.
더 좋은 렌즈도 많은데 굳이 나를 통해
작품을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초점을 잡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함석헌)

만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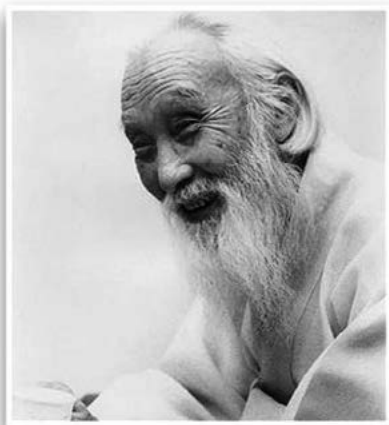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땀뻘 배 끼치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정말 살아다오."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 두거라." 일러 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있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